시 론

얼리 어답터와 불안의 사회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한국은 지구촌의 첨단 과학기술이 낳은 따끈따끈한 것들이 가장 빠르게 실험되고 접목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사회다.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는 구호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풍조로도 증명 가능하다.

기술이든 시스템이든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회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절대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경제적 발전이 시급했던 한국에서는 실험적 수용이 반세기 이상 사회문화적 반발이 속도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실험 사회'로도 부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다.

'변화'는 한국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단어이고, '변화'와 함께 추앙되는 단어는 경쟁 속에서 승리자로 만들어줄 '자기계발'이다. 자기계발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은 죄악시 되는 단어다. '안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퇴보를 의미한다. 한곳에, 하나의 상태에 머무르며 서서히 천이(遷移)를 꿈꾸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도태로 여겨진다.

모든 세대에게 급속한 천이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는 때문인지, 노년세대가 손녀에게 앱을 가르쳐주는 광고까지 등장했다. 놀랍다. 노년세대가 청소년들보다 얼리 어답터가 되어야 한다니! 광고처럼은 아니지만 실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제 노년은 키오스크에 빠르게 적응해야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하나의 기술이 등장하면 이전의 모든 기술을 무용화해버리는 것이 이 나라가 자부심을 갖는 풍습이기 때문이다.

얼리 어답터 사회에서는 자신이 이제 막 터득한 생존기술을 곧 부정해야 한다. 그 기술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기술에도 사회적 상태에도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므로 안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라고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면의 목소리라면, 기업의 목소리에 답하는 방식의 자기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얼리 어답터 사회에서는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든다. 변화는 인류의 삶의 근간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때마다 어느 계층이나 세대가 불안 속으로 내몰렸다. 한국은 수용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로 바뀌었다.

불안은 다른 사회적 문제로까지 파급된다. 한국이 260조원을 쏟았지만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9명이었다고 CNN이 보도했다. 몇 백만원 지원해주는 방식은 일차원적이라고 논평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주변 환경이 새끼를 낳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면 새끼를 낳지 않거나 그 장소를 떠난다. 인간의 반응도 동물들의 반응과 전혀 다르지 않다.

폴 비릴리오(1932-2018)은 『속도와 정치』에서 "최대한의 도달 속도를 지닌 대중들에게만 안전이 찾아올 것"이라고 쓴 동시에 "진보를 파괴한 것은 질주학적 진보의 본성인 속도"라고 썼다. 속도는 '안전'을 주지만, 속도에만 집착할 경우, 진보라고 믿은 것이 정작 진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적인 질주를 지금 잠시 멈추고, 우리가 추구한 속도가 무엇을 얻게 하고 무엇을 잃게 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속도는 변화를 필연적으로 이끌어낸다. 변화의 최종 목표는 전복이다. 그러므로 변화가 지나치게 신봉되는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변화도 관성이다. 그 관성에 가속도까지 붙으면 멈추기는 더욱 어렵다. 한국이 지금 그런 형국이다. 빠르고 실험적인 수용은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시차를 두고 태어난 기술이라도 얼마든지 공시적일 수 있다. 하나가 태어나면 하나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강박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반세기 넘게 기술적 향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레트로(retro, 복고풍) 열풍이 불고 있다. 단순하고 표피적인 스타일의 변주가 아니길 바란다. 향수의 시공(時空)을 잃은 것에 대한 깊은 각성이기를 바란다.

자치칼럼

마을이 즐거운 주민자치

김 용 민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송원대학교 교수

이락페스티벌, 처음 들어보면 '무슨 축제이지?' 할 것이다. 이락(里樂·마을과 함께하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즐거움), 마을이 즐거운 축제이다. 광주 자치구 중 한 곳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에 초대를 받아갔다. 축제 프로그램은 마을 노래부르기, 마을공동체 자랑하기, 청장과의 토크콘서트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흥미로웠던 것은 무대에서 율동에 맞추어 마을 노래를 부르는데, 객석에서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함께 부르고 율동을 따라 하면서 한판 춤사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자랑하기는 마을 주민이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기후위기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꽃길 조성, 각종 봉사활동 등 공동체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다. 모든 마을이 이 정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주민자치는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마을공동체 자랑하기를 보고 마을의 발전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공동체 형성 과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을 알기(씨앗심기)이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 아파트에서 살던, 주택에서 살던 이웃이 있다. 공동체의 핵심은 사람이다. 이웃을 아는 일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은 자원들이 많다. 마을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즉 역사자원이 많다. 마을에는 다양한 직업과 직종이 함께 모여 산다, 즉 경제자원도 많다.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몇 개이고,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몇 명이며,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일, 마을을 우선 알아야 공동체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마을을 알아가는 일은 즐거워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을에서 봉사(꽃피우기)하기이다. 자신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빠르기는 하겠지만, 공동체와 자신이 잘 맞아야 한다. 마을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모든 봉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웃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마을에서 봉사하는 일은 즐거워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을활동가(열매맺기)로 활동하기이다. 마을의 인적·물적자원을 알고 마을 봉사활동에 재미가 있으면 마을활동가로 성장하게 된다. 마을을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는 일에 좀더 앞장서서 활동하게 된다. 마을활동가의 길은 더소 힘이 들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마을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다. 사람을 만나고 마을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흥분되며 뿌듯하다. 마을활동가의 일 또한 즐거워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사람자원발굴(수확하기)이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다수의 마을활동가들이 필요하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을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도 사람들을 몰라서, 봉사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할 줄 몰라서 머뭇거리는 이웃을 손잡아 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사람 자원을 발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 자원이 발굴되면 즐겁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마을리더로 성장(재능기부로 나눔)이다. '리더'는 '함께하는 대표자'를 의미하고 '보스'는 '함께하지 않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보스는 나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한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같이 가자라고 한다. 이것이 리더와 보스의 차이이다. 마을공동체에는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로서 나는 즐거워야 한다.

마을을 알고, 마을에서 봉사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 일을 하면서, 마을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일은 모두가 즐거워야 한다. 마을이 즐겁다면 마을은 성장할 것이다. 즐거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주민이 주인인 마을 자치의 시작이다.

독자투고

주택 상가 앞 주차 방해물 불화만 키운다

남을 배려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갈수록 주택가나 상가 앞 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업주와 주민들이 집 앞 도로변에 주차방해물을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다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앞과 상점앞에 일부 얌체족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폐타이어와 화분 등 불법 적치물을 마구잡이로 쌓아놓아 이면도로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권까지 침해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도심지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보니 주변 이면도로나 골목길, 상점앞에는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또는 영업에 방해된다며 버젓이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폐타이어나 화분, 라바콘을 보는 것은 이제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부 영업 상가 앞과 이면도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자신의 영업점을 방문한 손님이 아니면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량운전자와 실랑이까지 벌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렇듯 마구잡이로 온갖 주차 방해물들이 즐비하게 나뒹굴다보니, 교통사고위험이 증대됨은 물론 도심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타인들도 세워놓는데 무슨 일 있겠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탈피해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교통질서 의식 확립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 '블랙 아이스' 주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우는 '블랙아이스'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 위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아이스(노면 살얼음)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한 번 미끄러지면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얇은 얼음막이다. 겨울철 눈이 녹거나 비가 온 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위에 형성된다.

도로의 먼지.매연 등과 결합해 어두운 아스팔트 색과 비슷해지면서 결빙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운전자들은 이를 단순히 도로가 젖은 것으로 생각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블랙아이스 사고는 주로 통행량이 많은 주말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 줄이기와 안전거리 확보다.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커브길 등이 주요 발생지다. 겨울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다 해도 그늘진 곳은 일반 도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낮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도로를 운행할 경우 차량 속도를 규정속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좋다.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교통사고 예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 說

고병원성 AI 대확산 전남도 뒷북 대응 아닌가

전남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방위로 확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라남도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뒷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한 타 시·도의 경우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병원성 AI가 폭증하고 있어서다.

장흥 가금농장에서 지난달 15일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인된 이후 한 달도 안되는 기간 전남에서는 독립적·산발적으로 15건으로 늘어났다. 장흥을 시작으로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흥 육용오리 농장, 나주 산란계 농장·육용오리 농장, 나주 육용오리 농장, 무안 종오리 농장, 함평 산란계 농장, 나주 육용오리 농장, 무안 종오리 농장, 곡성 육용오리 농장, 영암 산란계 농장 등 속수무책으로 이어졌다. 올 겨울 철새에 의해 전 지역이 오염되고 병원성과 전파력 역시 예년보다 3배 이상 위험하다. 서남권 뿐만 아니라 중·동부권도 발등의 불이 된 모습이다.

전남도가 예비비 20억원을 집행하는 등 비상대응에 들어갔다.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종오리와 산란계 등 위험 농장에 초소를 확대했다. 또한 농장 밖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차량을 160대에서 180대로 증차해 철새도래지 주변도로와 농장 주변을 1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소독 횟수를 늘렸다. 나주와 영암을 고위험 지역으로 정해 중앙 합동방역반과 전남도 농장점검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방역 위반농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 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산 및 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은 5년 동안 배제된다.

AI 대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재앙 수준에 도달했다. 전남도는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금농장에서도 소독 및 통제 등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방역 현장 확인에 전력해야 하겠다. 너무나 중대한 시기다. 가급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잘 넘겨주길 바란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지방소멸 막는 정책될까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특화 사업이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성과나눔대회에서는 곡성군이 대상, 해남군과 함평군이 최우수상, 광양시, 영광군, 완도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전남도는 2023년 선정 마을을 대폭 늘리고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천곳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반으로 3천개로, 총사업비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편성해 마을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곡성군은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으뜸마을 워크숍을 통해 사업을 주민자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보성군은 600사업을 통해 마을 만들기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탄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하생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은 특강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환경 개선 등 자치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치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채 목포과학대학 교수는 경관 개선을 통해 마을 소득사업과 연계하고 인구소멸을 막은 일본의 가바와마을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허름한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쓰레기가 방치된 땅에 꽃밭을 조성하며, 노후 시설물을 교체했다. 또한 주민, 유관기관, 자생단체 등이 하나가 돼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통해 자랑거리를 알리며, 사진첩 제작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왔다.

주민과의 소통과 공동체 정신 회복을 목표로 마을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 생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선한 영향력이 전남의 모든 마을로 이어져 공동 번영을 약속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으뜸마을이 전남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

아침을 여는 詩

세상 참

김남주

있는 사람들은
진수성찬 먹는 둥 마는 둥 그대로 남기고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 터져 죽겠다 급살이고

없는 사람들은
남은 음식 바닥까지 긁어 먹고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고파 못 살겠다 야단이고.

(시집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미래사, 1991.)

[시의 눈]

'급살'과 '야단'은 사실 남은 음식과 바닥 음식,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꾸중 역할을 합니다. '배터지고'와 '배고프고' 이 부자와 빈자의 길이란 평행선일까요. 내 경험에 의하면, 학교나 관공서 급식소엔 버려지는 음식이 많았더랬지요. 잔반 처리하는 비용이 음식 만드는 것의 20%가 넘는다면 뭐 주객이 전도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이 시간, 아프리카 아이들은 나무가루로 연명하거나 먹을 물도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굶는 이웃은 덤프트럭 아래의 아이처럼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참' 불공평한 아이러니군요. 한데, 어디선가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저런, 골목 안에 누가 컵라면을 통째 쏟아 버렸군요. '급살맞을 놈이구먼', 옛 할머니가 '야단'치며 들어서던 사립문을 넘어다봅니다. '가난한 집에선 신주단지도 굶는다'는 말이 있지요. 연탄마저 동이 난 거멍댁 할머니는 조상님께 드릴 메가 없습니다. 해서, 올 설도 빈손으로 비손하려 합니다. 사랑의 온도란 앉아있어 오르지 않습니다. '급살'을 지렛대로 '야단'을 낮출수록 그 온도는 높아지지요. 김남주(1946-1994) 시인은 해남에서 나 1974년 '창작과비평'에 작품을 발표하며 등단했습니다. 시집 '진혼가'(1984), '나의 칼 나의 피'(1987), '조국은 하나다'(1988) 등이 있습니다. 그는 핍박받은 현실을 역사적 그릇, 또는 진한 서정의 품속으로 녹여내 독자 호흡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시인입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